

## 書誌學 教育의 回顧와 展望

현 영 아

### 〈목 차〉

- |                 |                 |
|-----------------|-----------------|
| I. 머릿말          | IV. 書誌學의 教育 方向  |
| II. 書誌學의 研究 領域  | 1. 專門大學 課程      |
| III. 書誌學의 教育 現況 | 2. 學部課程         |
| 1. 專門大學         | 3. 大學院의 碩·博士 課程 |
| 2. 大學校          | V. 맺는말          |
| 3. 大學院          |                 |

### I. 머릿말

教育이란 가르쳐 기르는 것으로 이는 現在를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치중하지만 현재는 과거로부터 이어졌으며 또한 미래로 이어진 점에서 그 자체에는 항상 과거와 미래의 性格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教育이란 오늘날의 觀點에서 살펴 불합리한 것은 고치고 새로이 요구되는 것은 반영하되, 그 자체는 곧 미래를 위한 教育의 方向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圖書館學의 教育에 대한 論議는 과거를 토대로 또한 현재를 파악하고 새롭게 미래를 위한 方法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그의 한 범주인 書誌學分野 역시 맥락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圖書館의 運用은 '70年代는 물론 '8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 더욱 더 큰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學問, 教育, 產業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文獻에 대한 신속한 情報의 要求로 圖書館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그 活動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분야에서 폭넓은 과학정보가 요구되면서 싹터 산업사회에 그 전파가 가속화하여 마침내 학문적 체계를 갖춘 정보과학의 비약적인 發展에 따라 圖書館의 대외

봉사에도 一大革新을 가져오게 하였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도서관의 業務가 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종래의 敎育 方法에 대해 修正 補完이 필요하고, 그 敎育 내용에 새로운 것의 수렴이 踏實的 現實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는 潮流의 파동은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 전개되어온 圖書館學 敎育의 方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도서관학 敎育의 目標을 開發적으로 設定해본다면 인류가 屢代를 걸쳐 경험한 지식과 기술을 담은 모든 자료를 올바르게 評價·選集하여, 체계적인 方法으로 組織 축적하고 再生産 管理하며, 그 바탕위에 여러 분야 연구자들의 다목적 이용에 즉시 活用할 수 있도록 積極적인 情報奉仕를 展開하고 이를 위해 圖書館을 효율적으로 運用하는 것에 관한 理論과 實際를 가르쳐 기르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圖書館學 敎育의 目標을 생각해 볼때, 현재 圖書館學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書誌學의 敎育 方向도 결국 圖書館學 敎育의 目標로 지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며, 새로이 發展하는 時代에 맞는 書誌學의 敎育 方向을 設定하기 위하여 먼저 現在 대학 및 專門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書誌學 分野의 敎育과정을 分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롭게 또는 독자적으로 現시대에 맞게 開拓시켜야할 점이 없는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바람직한 서지학의 敎育방향을 나름대로 言及하고자 한다.

## II. 書誌學의 研究 領域

書誌學의 敎育 方向을 言及하기에 앞서 그 學問은 어떤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의 기능과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부터 踏實히 考察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周知하고 있는 바와 같이 書誌學의 用語는 最近세에 도입된 西歐語의 번역어이다. 영어로서는 Bibliography, 獨·佛語로서는 Bibliographie 로 쓰고 있

으나, 그 語源은 다같이 희랍어인 Bibliographia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희랍어는 合成語이며, 그 중 Biblio는 Biblion의 接頭語로서 책(Book)을 뜻하고 graphia는 接尾語로서 쓰는 것(a writing)을 뜻한다. 이와 같이 그 語原은 본시 「冊의 書寫」(a writing of book)을 뜻한 것이고 記錄資料가 많이 생산됨에 따라 「책에 관하여 쓰는 것」(a writing about book) 그리고 책에 관하여 記述(a describing about book)이라는 뜻으로 확산되어 記述科學의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문이 더욱 발전됨에 따라 그 정의와 범위는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展開되니 廣義의 狹義의 見解를 낳게 했는가 하면, 동·서양의 學問의 性格, 刊行 및 書寫의 생산적 수단, 책의 형태적 특징 또는 文獻奉仕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각각 相異한 觀點과 方法을 낳게 하였다. 그렇지만 그간 저술된 東·西洋의 書誌學에서 主要 공통된 요소를 뽑아서 기본적인 영역을 크게 설정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번째 영역은 本文의 文字를 對校하여 誤字와 脫字를 바로 잡고 本文의 文章에 차이가 있다면 그 傳來를 밝혀서 原文 또는 正本의 本文을 올바르게 인식 또는 復元하는 分野이다.

그 책에 여러 종류가 있을 때에는 本文부터 分析 批評하고 誤脫을 바로 잡아 밑바탕으로 삼는 것이 선행적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최초로 싹튼 書誌學의 領域이라 할 수 있다. 東·西洋을 막론하고 주로 古典 資料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를 校甚學 또는 校雙學, 西歐에서는 原文 書誌學(Textual Bibliography)라 일컫고 있다.

두번째의 영역은 東西古今에 걸쳐 人類가 기록해 놓은 文獻을 體系의으로 수집 축적하고 또 이에 엮어진 書目을 통해 필요한 書誌情報의 인식과 그 活用에도 이끌어주는 分野이다. 책의 本文을 校正하는 활동에 이어 싹튼 書誌分科學이며, 中國에서는 이를 傳統的으로 目錄學이라 일컬어 學問에의 入門學으로 重視하고 있다.

한편 西歐에서 文獻 流通이 완만했던 시기에는 書誌 情報의 신속한 제공을 위주로 主要 書誌 事項만을 간단하게 열거한데서 列舉書誌學(Enumerative

Bibliography) 하였으나, 문헌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와 체계적인 편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자 體系書誌學으로 일컫는 이가 많이 생겼다. 또는 그 체계적인 편성을 주제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서 主題書誌學(Subject Bibliography)이라 일컫기도 하고, 書誌組織(Bibliographic organization) 또는 書誌統整(Bibliographical Control)의 용어도 많이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우기 요즈음은 抄錄, 索引까지 포괄하는 書誌의 統整이 電算化로 추진되어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다.

書誌의 統整이란 文獻을 識別(綜合書目を 통해)하고 選定 또는 檢索(union catalog 分 등을 통해)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듯이 書誌學 分野는 과거와 현재의 學問을 막론하고 여러 主題 分野의 研究者들에게 가장 중요한 入門的인 구실을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세번째 영역은 刊本과 寫本의 형태가 지닌 특징과 변천과정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 조사 평가하여 책의 刊行 또는 書寫 時期를 고증하고, 그것이 原本인가 혹은 後代의 것인가를 가름하여 책의 우열을 식별하는 말하자면 印刷 또는 筆寫된 典籍의 형태적 특징에 의하여 그 책의 성격을 감정하는 것이 위주이다. 이 분야를 中國에서는 板本學, 西歐에서는 形態書誌學(Physical, Material Bibliography)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形態書誌學으로 이름 붙인 것은 책이란 물리적 형체가 지닌 특징과 그 변천과정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 조사 연구하여 기술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板本學은 周知하고 있는 바와 같이 中國의 刊本이 주로 木板本인 점에서 그 준말을 쓴 것인데, 책에는 板本 이외에도 活字本 寫本 등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活字本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는 포괄적인 명칭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書誌學의 基本的 領域은 發生史的인 관점에 의한 것이나, 그 중 첫번째나 세번째 영역 즉 原文書誌學과 形態書誌學은 주로 古典資料가 그 대상이 되고, 두번째 영역, 列舉書誌學 및 (또는 體系書誌學)은 동서고금의 學問 분야가 다같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나, 특히 문헌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구실이 자못 크다고 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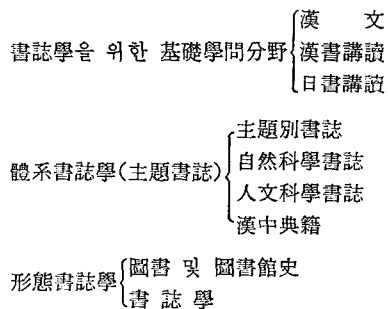
있다.

### Ⅲ. 書誌學의 教育 現況

위와 같은 書誌學의 研究 領域에 準하여 실제로 敎育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敎科課程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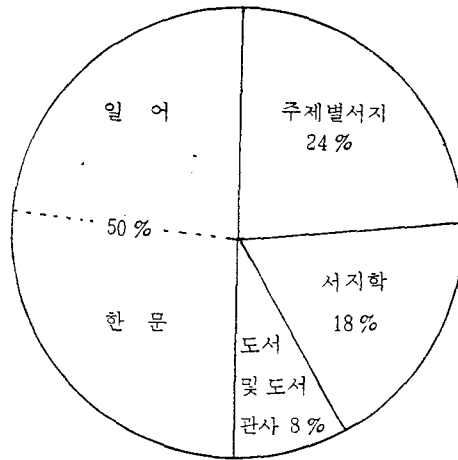
#### 1. 專門大學

全國의 6개 전문대학의 敎과과정을 中心으로 보면 서지학을 위한 基礎學問分野, 主題別書誌, 書誌學, 圖書 및 圖書館史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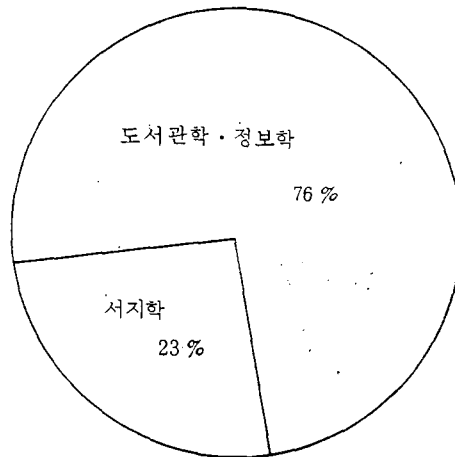


이러한 書誌學의 敎育 內容을 書誌學 자체 내에서의 비율이 어떠한지 분석하여 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즉 도 1)은 전국 전문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는 書誌學 分野의 科目數는 38개로서 이들 과목간의 비율을 보기 위한 시도이다. 여기서 보면 전체 개설 과목수 38개중 書誌學을 研究하기 위한 基礎學問分野가 19科目으로 50%, 主題別書誌가 9 과목으로 24%, 書誌學이 7 과목으로 18%, 圖書 및 圖書館史가 3 과목으로 8%가 됨을 볼 수 있다.



(도 1)



(도 2)

이들 전문대학에서는 基礎學問分野인 日語와 漢文에 中點을 두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 자료의 주제별 이용을 위한 主題別 書誌, 書誌學, 圖書 및 圖書館史의 順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전체 도서관학의 개설과목중에서 書誌學 분야와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전체에서 개설하고 있는 총 도서관학 과목 수는 165개인데 여기서 書誌學 分野의 科目은 38개 科目으로 23%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문대학에서 서지학 분야에 있어서 가장 비중을 두는 科目은 書誌學 研究를 위한 基礎 語學分野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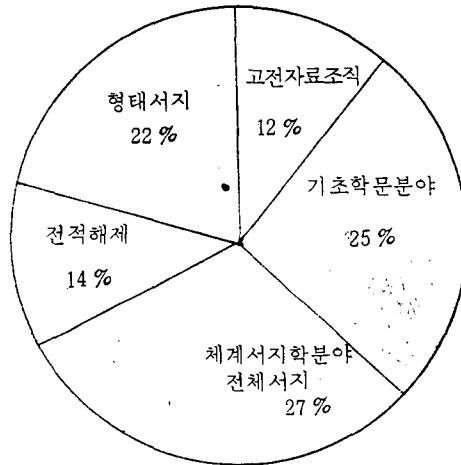
## 2. 大 學 校

대학교의 學部에서 書誌學 分野의 教育 內容을 크게 구분하면 古典資料組織, 基礎學問分野, 典籍解題, 體系書誌學(主題書誌), 形態書誌學 分野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실제 開設되고 있는 科目名으로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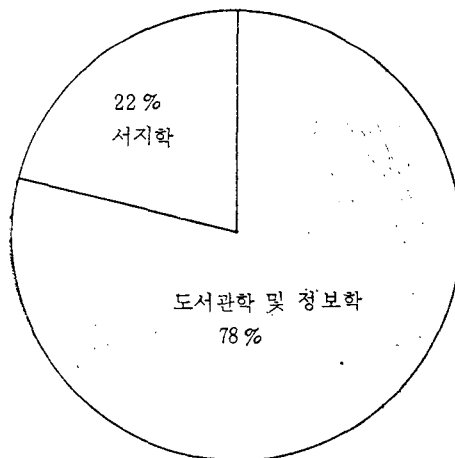
領 域 別	科 目 名	開 設 數
古 典 資 料 組 織	古 典 組 織 法	23
基 礎 學 問 分 野	漢 書 講 讀	22
	日 書 講 讀	28
體 系 書 誌 學(主 題 書 誌 學)	人 文 科 學 書 誌	54
	自 然 科 學 書 誌	
	社 會 科 學 書 誌	
典 籍 解 題	東 洋 典 籍	14
	韓 國 書 誌	14
形 態 書 誌 學	書 誌 學	36
	圖 書  및 印 刷 史	9

이를 書誌學 分野에서 과목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개설과목 200 과목을 중심으로 그 비율을 보면 古典資料組織은 23 과목으로 12%, 基礎學問分野는 50 科目으로 25%, 體系書誌學分野는 54 科目으로 27%, 典籍解題는 28 科目으로 14%, 形態書誌學分野는 45 科目으로 23%이 되는데 이를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이를 전체 도서관학분야와 서지학분야의 비율을 보면 전체과목수가 900개 과목에 서지학분야는 200개 과목으로 22%에 해당됨을 또한 볼 수 있다.



(도 3)



(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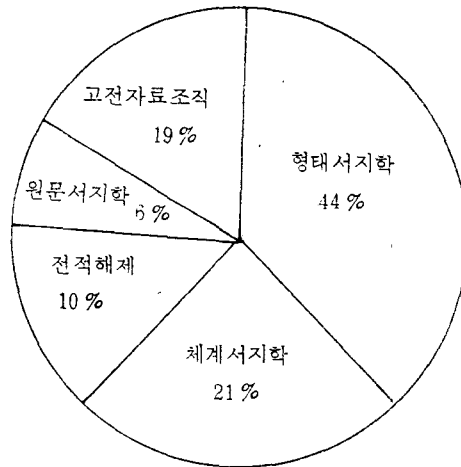
이상에서 보면 學部에서는 전체 圖書館學 分野중 22%에 비율로 書誌學分野의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또한 書誌學 分野에서는 主題別書誌科目, 基礎學問分野, 形態書誌學分野, 典籍解題, 古典資料組織 順으로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大學院

大學院 課程에서는 碩·博士를 구분치 않고 한데 묶어 전체 圖書館學의 科目으로 436개 科目이 開設되었는데 그 중 書誌學 分野는 94개 과목으로 22%에 해당되며, 이를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領 域 別	科 目 名	科 目 數
形 態 書 誌 學	書 誌 學 特 講	41
	東 洋 書 誌 學	
	中 國 形 態 書 誌 學	
	書 誌 學 研 究 法	
	朝 鮮 朝 板 本 研 究	
體 系 書 誌 學	體 系 書 誌 學 研 究	20
	人 文 科 學 書 誌 研 究	
	社 會 科 學 書 誌 研 究	
	科 學 技 術 書 誌 研 究	
	儒 學 書 誌 研 究	
	佛 教 書 誌 研 究	
典 籍 解 題	中 國 典 籍 研 究	9
	東 洋 典 籍	
	韓 國 典 籍	
	史 籍 解 題	
	古 典 目 錄 研 究	

古 典 資 料 組 織	目 錄 學	18
	韓 國 目 錄 學 研 究	
	韓 國 目 錄 史	
原 文 書 誌 學	原 文 書 誌 學	6



(도 5)

위에서 과목명은 아주 세분되는데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領域別로 묶어서 각기 비율을 내면 形態書誌學分野가 44% 體系書誌學分野가 21%, 典籍解題가 10%, 古典資料組織이 19%, 原文書誌學 6%임을 알 수 있으나 붙여서도 언급했듯이 역별로 아주 세분되었다,

대학원에서는 形態書誌學 및 體系書誌學 古典資料組織 및 典籍解題와 原文書誌學 順으로 비중이 주어지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 IV. 四書誌學의 教育 方向

앞에서 言及한 書誌學 各 領域에 대한 教科目的 開設을 일률적으로 제시

할 수는 없고 자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수준에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 1. 專門大學 課程

이에서 개설되는 書誌學 領域의 教育方向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圖書 및 印刷史

이의 내용은 온 世界에 있어서 어떤 文字들이 창안되어 어떤 形態의 자료에 쓰여졌고 종이와 발명된 후 서적의 형태적 역사와 印刷術의 발상 및 보급의 역사적 연구가 포함된다. 또한 각 시대의 印刷術的인 특징과 그 영향을 연구토록 한다.

#### 2) 一般書誌와 韓國書誌

이에서 一般書誌는 圖書館에서 文獻奉仕에 필요한 이를테면 東·西洋의 主題別書誌로서 書誌奉仕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體系書誌 全般에 걸쳐 그 書誌情報의 認識, 選定 및 검색방법을 익숙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서 또한 각종의 書目이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書誌는 한국의 사서라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書誌資料에 대한 봉사는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 文獻이 전통적인 형태이건 新刊의 형태이건 자기 자료의 선택을 위한 評價方法 및 分類目錄의 難題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목이 될 것이다. 이르기 위하여 역대의 우리나라의 書誌들의 특성·組織들을 이해시켜야 될 것이다.

### 2. 學部課程

學部課程에서 開設되는 書誌學의 各 領域의 教科目 內容과 教育 方向은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 1) 書誌學 概論

이에서는 東·西洋의 書誌學의 정의 및 범위는 물론 東洋 및 西洋으로 나누어 書誌學 理論은 체계적으로 언급된다.

東洋의 形態書誌學 측면과 또한 더불어 西洋에서는 어떻게 학문적으로 연구되었는지 분석 연구토록 한다.

#### 2) 韓國書誌

이는 專門大學 課程에서 言及한 내용으로서 大同小異하다고 보겠다.

#### 3) 人文科學書誌, 社會科學書誌, 自然科學書誌

이들은 학문 상호간의 연관성과 해당과학 분야의 범위 및 발달, 그리고 각 분야의 주요 資料를 評價, 選定 및 文獻奉仕에 임하도록하며 主題專門司 書로서 奉仕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方向으로 교육을 이끈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와 같이 電算化 처리로서 書誌統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색인 및 초록법의 방법도 아울러 포함시켜, 검색방법의 이론과 실제까지 습득시켜 정보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中國書誌

이는 韓國文獻의 檢索 및 利用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中國의 資料에 대한 선택, 분류, 목록 및 이용봉사의 당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中國 歷代의 主要體系書誌를 들어 그 概要 및 特性和 組織方法 그리고 主要類門을 아울러 연구하고 그에 해당되는 基本圖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5) 古典資料組織法

韓國 및 中國의 傳統資料에 대한 分類目錄의 理論과 實際를 가르치기 위한 과목이다. 따라서 분류에 있어서는 現代의 十進法과 在來의 四部法中 어느 方法에 의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兩者의 相關문제를 注重하여 教育시켜야 할 것이며, 더우기 앞으로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전산화가 시도될때, 특히 그 주제내용이 파악되어야 되므로 實질히 요구되는 과목이다.

目錄에 있어서는 記入형식이 어떠한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刊行 또는 書寫事項과 種을 精確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目錄의 오류로 이용자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目錄教育에 있어서 主된 目標이 될 것이다.

#### 6) 語學科目

이는 書誌學을 研究키 위한 기초적인 科目으로 漢文, 日語 등은 제시할 수 있는데 많은 학생이 語學에 가로막혀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할 뿐더러 研究 過程中 벽에 부딪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3. 大學院의 碩·博士 課程

이에서 실시되는 書誌學 分野의 敎育은 學部課程보다 한 次元 높게 특수하게 끌고가 探究케 하여야 될 것이다.

이의 敎科內容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 1) 形態書誌學特講  
韓 國  
中 國
- 2) 體系書誌學特講  
韓 國  
中 國
- 3) 原文書誌學
- 4) 西洋書誌學特講
- 5) 古文書學研究
- 6) 古典資料組織法研究
- 7) 寫本論
- 8) 人文科學書誌研究
- 9) 社會科學書誌研究
- 10) 自然科學書誌研究
- 11) 索引 및 抄錄法研究
- 12) 典籍管理

위의 敎科目中 碩·博士課程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각기 大學사정에 따라 구분될 것이며 學部課程과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있게 배당해야 될 것이다.

이들 敎科目에 대한 敎育方向을 크게 구분하여 개관하면 첫째 東洋 및 古

典資料에 대한 評價와 選擇法이라 볼 수 있다.

즉 韓國 및 中國의 形態, 體系, 原文書誌學 그리고 寫本學은 결국 자료의 수집을 위한 평가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가장 초기의 것이 善本이므로 같은 著作中에서 原本이 어느 것이냐를 터득한다는 것은 위의 과목들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 본다.

두째, 資料에 대한 分類·目錄으로서 이는 기왕에 엮어진 書目과 目錄들의 利用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古典資料의 利用法 및 그의 評價에도 기초가 되는 것으로 體系書誌學과 古典資料 組織法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세째, 資料의 利用奉仕의 측면으로서, 어떤 著作의 성립과 그의 刊行에 대한 方法을 인식하게 되므로 찾고자 하는 文獻이 어떤 書目에 수록되어 있나를 알고 그 著作의 內容 및 모든 書誌事項을 파악하여 資料의 檢索을 용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에는 각종의 書誌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현대에 있어서 電算處理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는 그 書誌統整의 理論과 實際를 研究하는 方向으로 教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索引 및 抄錄法의 研究는 더우기 information science 와 더불어 개설된 새로운 방법과 절차를 이론과 실제적인 면에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古典資料의 이용을 위하여도 필수적이다.

主題分野의 資料를 集成하여 이용에 응하고자 하는 科目으로 각 자료의 주제에 따라, 즉 文集, 正史 등 각기 그 用語와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索引作成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야 古典資料의 활발한 이용이 기대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正史에서는 年代記索引, 紀傳體索引, 編年體索引 등으로 형식이 다를 수 있고 文集에서는 형식별, 테마별, 또는 관련인물별로 달리 색인이 작성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用記上의 통일문제, 용어의 선정 등 문헌검색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典籍管理에 대한 것으로 이는 보존(conservation)의 문제 [즉 제본과 보존의 현대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으로 과목이

개설되어야 될 것이며, 보존을 위한 화학적 약품처리 등 보다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보존방법을 모색하여 고전의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여섯째, 西洋書誌學의 研究는 그 學問의 發生 및 發達, 그리고 특성 및 현대적 研究方法를 고찰하고 우리의 書誌學과 비교연구하여 그 중 바람직한 方法論을 받아들여 우리의 것을 개척·발달시키는 방향으로 教育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V. 맺는 말

위에서 書誌學 教育의 현황과 教育內容 및 方向을 언급하였는바

1) 書誌學의 각 영역에 대한 教育目標는 도서관학의 教育목표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韓國 및 中國資料를 대상으로 書誌學이 다른 영역의 學科에서도 教育이 되고 있으므로 教育목표의 뚜렷한 設定이 1 차적인 당면문제라 볼 수 있다.

2) 書誌學 教育의 現況에서 보면 전문대학은 기초어학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 주제별 서지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학부과정에서는 主題別書誌 基礎學問分野, 形態書誌學에 중점을 두고 있음도 알 수 있었으며 대학원에서는 영역별로 세분되었으며 體系典書誌學이 가장 중심이었음을 살폈다.

3) 특히 학부에서는 기초학문분야에 비중을 두었으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書誌學 各 領域의 教育은 이를테면 컴퓨터 조작으로 축적된 書誌情報를 끄집어 내어 利用者에게 제공하는 즉 情報管理의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學部以上の 과정은 文獻을 직접 다루어 理解·評價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축적하며 檢索奉仕할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하여 專門司書를 育成해 내는 方向으로 教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書誌學이 분야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언급하면 첫째 用語의 통일성을 들 수 있으나 특히 學問的인 用語의 해석과 그 용어가 통일이 되어

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教育資料의 不足 및 그의 補完과 함께 書誌學 關係 教材의 공동편찬을 들 수 있겠다.

셋째, 形態書誌學의 치중으로 書誌學을 活字, 板本 紙質 등에 관한 研究만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도 있어 이의 止揚을 위하여 書誌學의 研究領域을 반드시 辟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西洋書誌學의 概論도 반드시 학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書誌學의 각 領域別 教育 내용들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서관 자료의 電算化에 있어서, 더우기 專門司書로서 古典資料의 주제 및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므로 더욱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書誌學의 領域, 教育現況 및 教育方向은 미흡하게 言及하였으나 보다 더 치밀한 研究와 함께 외국의 서지학 교육과정과의 비교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